

문화

■ 촬영 스마트폰 영상 촬영기

지난 4월5일 오후 7시, 광주시 서구 금호동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 강의실에 10여 명의 직장인과 학생이 모여 들었다.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찍어보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가 마련한 '스마트폰으로 영상만들기'는 광주·전남지역에서는 첫 시도되는 스마트폰 영상촬영·편집 교육이었다. 기자가 직접 이 강좌를 들으며 스마트폰을 활용해 영상을 만들고 편집한 촬영 기기를 소개한다.



스마트폰으로 찍으면 나도 영화감독

▲ 언제, 어디서든 촬영·편집 가능

스마트폰의 보편화로 영상 분야에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스마트폰은 작고 가벼워 필요할 때마다 영화와 영상을 찍을 수 있고, 적은 제작비와 인원으로도 충분히 촬영이 가능하다. 스마트폰만 있다면 누구나 영화 감독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지난달 7~28일 매주 화·목요일 8차례 펼쳐진 '스마트폰으로 영상만들기'는 독립영화감독 송승민씨가 강사로 나와 스마트폰만 가지고 모든 작업을 완성하는 과정을 배웠다. 일상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기획 콘티를 짜고, 스마트폰 카메라의 활용법을 익혔다.

수강생들은 수업을 빼먹고 도망가는 아이들을 잡으려니는 여교사의 일상, 친구를 이기고 싶어하는 꼬마 수영선수의 노력, 달콤한 꿈을 꾸는 공무원 준비생 등을 영상으로 찍었다.

기자는 16개월 된 아들의 손톱이 빠지고, 다시 자라는 과정을 스마트폰에 담았다. 촬영 기간은 4일. 첫날 촬영분은 스마트폰을 세로로 놓고 촬영해서 전혀 쓸 수 없었다. 세로로 찍으면 화면 비율이 맞지 않아 좋은 영상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가로 촬영'은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려는 초보자가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이후 영상에서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찍다 보니, 손떨림으로 덩달아 영상도 흔들려 애를 먹었다.

하지만 크기가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은 다양 한 앱과 촬영기법을 구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카메라였다.

손떨림은 아이들 장난감 자동차에 스마트폰을 고정해 잡았다. 자동차를 조금씩 움직이면 트랙을 깔고 고정된 카메라를 이동해 피사체의 움직임을 쫓아가며 촬영하는 '무빙샷'도 가능했다.

걸음걸이를 맨 아이의 종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장난감 하나로 고스란히 담아낼 수 있었다.

스마트폰 수중 촬영에도 성공했다. 물이 새지 않는 음식 담는 유리 밀폐용기로 충분했다. 테이프를 이용해 스마트폰을 유리 용기 안쪽에 고정(카메라는 용기 밖을 향해야 함)한 뒤 촬영을 시작한 상태에서 뚜껑을 닫으면 된다.

이 방법으로 아이가 육조에서 물장난 치는 장면을 잠수 장비 하나 없이도 물속에서 찍어낼 수 있다.



광주시청자센터에서 열린 이 지역 첫 스마트폰 영상촬영 강좌 모습.

작고 가벼워 적은 제작비·인원으로 영상 제작

밀폐용기 이용 수중 촬영 가능… 편집도 쉬워

있었다.

최근 한 인터넷 사이트 사용자가 스마트폰을 무선 조정 장난감 비행기에 매달아 항공 촬영에 성공한 것처럼, 잠수 장비가 충분하다면 이 방법으로 바다 속 촬영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다.

▲ 상상하는 모든 것을 찍는다

크레이인에 카메라를 달고 하이앵글로 찍는 '부감샷'도 손쉽게 할 수 있었다. 장대나 우산 등에 스마트폰만 고정하면 달리는 피사체를 뒤따라 편집이 끝난 영상은 바로 아이패드, 유튜브,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편집도 비교적 손 쉬웠다. 이번에 쓰인 애플리케이션은 '아이무비'였다. '아이무비'는 전문적인 기능은 부족하지만 초보자도 쓰기 편했다. 모든 영상을 한꺼번에 불러와 편집할 수 있어 콘티

에 맞춰 촬영하는 법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들은 촬영 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영상을 재구성할 수 있다.

테마 음악 외에도 다양한 음향 효과가 준비되어 있어 박수, 환호, 동물 소리 등 재미있는 음향 효과를 곁들일 수 있고 녹음 버튼을 눌러 내레이션도 삽입할 수 있다.

자막은 오프닝, 중간, 엔딩의 3가지 형식으로 끌라서 넣고 하나의 화면 전환 옵션도 다양했다. 편집이 끝난 영상은 바로 아이패드, 유튜브, 페이스북에 업로드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편 광주시청자미디어센터는 오는 7월과 11월에도 2차례 '스마트폰으로 영상만들기'를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일정은 오는 6월15일까지 미디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다. 문의 062-650-030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금당 공인중개사

■ 감정가 이하

- 고등권 청 무인모텔 객실70 캄핑48석 대출30억 매도38억
- 쌍층동 상가·목욕탕·주택 대지 111 건평 367 대출 5억 보증금 2억 3200만원 월세 798만원 매도 11억
- 교회건물, 구시청(아파트)옆 대지 71 건평 239(4층 건물) 노인요양시설포함 운행 1억 7300만원 매도 5억4천
- 대인동 소방도로코너 5층상가건물 대지 67 건평 210 공시지가 2억8천 다용도 시용 4억6천만원
- 광산구 우신동 대지185 건평624 캄팅15억4천 임대문은 전세5천만원 월세560만원 대출5·5천 매도9억3천
- 유촌동 땅 1632평 창고 350평 풍차지가 14억2천 매도21억
- 교회부지 내방동 484평 대출7억 매도 8억9천
- 금남로5가 대로변 대지496 건평872 공시지가 153억2천 임대사업에 적합 대도 53억원
- 회순 이연면 소재지 국도점 주거지역 596평 창고·공장지역 대출5천6백 공시지가에 매도8700만원
- 금남로5가 대지80 건평300 공시지가 13억3천 매도11억5천
- 동구 수기동 상업지역 282평 오피스텔·월류·디자인주택지 풍차지가 6억8300만원 매도5억2천만원
- 광산구 주유소 땅470 대출7억 매도8억3천
- 대인동 계림시장앞 4천평으로 상업지역372 건평435 공시지가 25억7천만원 매도13억3천만원
- 금남로4가 대지86 건평322 공시지가 매도16억
- 대인동 버스도로식당 대지63㎡ 공시지가에 매도 1억3400
- 매도·교환
 - 회순동 면서리 별장촌 250평 경관좋은 1억7500
 - 남평동 고원리 버스도로점 211평 주택과공장 19억3천8백
 - 시찰부지 북구 덕의동 광주대 부근 1840평 4억8천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

태영부동산 재테크컨설팅

호남경매신문지사,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 (20년 경력)

근린시설	· 서구 쌍촌동 3층상가 대지 55평 건평 100평 김정기2억 6천만 최저가 1억8천만
농가시설	· 광산구 비아동 3층상가 대지73평 건평131평 농가시설 김정가 3억5천만 최저가 2억 4천만
단독주택	· 나주시 금천면 과수원 토지 1,530평 김정기1억8천 최저가 1억3천만
전원주택	· 서구 벽진동 대지 143평 건평 57평 김정가 1억4천만 최저가 9천9백만
근린주택	· 화순군 능주면 대지 135평 건평 56평 2층주택 최저가 6천5백만
다가구	· 곡성군 곡성읍 2층상가주택 대지31평 건평62평 김정가 1억3천만 최저가 8천9백만

광주 서구 마륵동 도시철도공사 부근

T. 010-4911-4989 FAX. 062-376-6611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별 유지빌딩 501

전원주택지 급매

남구 대지동(대초부근) 일반주거지역. 미을내 나대지 886㎡(268평) 매매가 9800만원.(3.3㎡당 365,000원).

소촌공단내 공장매매 및 임대.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2,486.5㎡(752평).
공장1,120㎡ (338평), 매매가 11억3,000만원. 임대시 보증금 5,000만원 월세500만원.

●광산구 소촌동 소촌공단내 공장용지 660㎡(200평).
공장264㎡(80평), 매매가 3억.

화순도곡 전원주택지

●화순군 도곡면 협신리 도곡면소재지부근.
6,748㎡(2,040평). 관리지역, 현재임아. 2차선 포장도로 접함. 매매가 3.3㎡당 16만원.

자연녹지

●서구 매월동 서광주역 앞 전. 2,590㎡(783평).
3.3㎡당 98만원.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58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서구 세하동 임야. 면적 3,835㎡(1160평). 4m. 진입로. 매매가 3.3㎡당 65만원. 자연녹지, 현재 임야.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 임1,994㎡(603평). 구 주택2층, 매매가 1억6,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 매매가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010-3616-8698. 062-233-2222

조심스레 피어난 꽃망울 '연꽃'

양원철 개인전 26~6월 1일 대동갤러리



'연의 향기'

장 독도사랑전 등에 참가했다.

광주시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 무등미술대전 심사위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청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문의 062-222-0072.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사랑실은 노래봉사단’

27일 자선공연 협숙 출연



창단 19주년을 맞은 '사랑실은 노래봉사단'(단장 김효중)이 27일 오후 2시 KT 정보통신센터 3층 대공연장에서

'2011 소외된 이들에게 사랑을' 438회 특집 자선공연을 갖는다.

이현우밸리댄스코리아의 밸리댄스로 막을 여는 이번 공연은 '사랑실은 노래봉사단'의 체나리 단원을 비롯해 초청가수 현숙(시진)·박상철·조승구·문연주·김진씨 등이 출연·내인생의 박수·'꽃바람여인'·'돌이서'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또 박성용씨의 '신비한 마술 세계' 무대와 삼부대 군악대 연주, 이카루스안무단의 무용 공연이 준비됐다. 문의 062-269-0500.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어머니에 대한 추억·사랑 담아

최기종 시인 '어머니 나라' 출간... '밥 먹어라' 등 70여편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최기종(54) 시인이 자신의 부모님, 특히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추억과 사랑을 주제로 한 시를 한데 모아 '어머니 나라'를 출간했다.

2009년 우리나라 산하에 피고지는 온갖 꽃들에 대한 형상을 담은 연작 시집 '만다라화'로 주목 받은 시인의 세 번째 시집이다.

이번 시집에는 '청호택'으로 불렸던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감정과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에 대한 생각과 사고를 담은 시 70여 편이 '밥 먹어라' 등 4부로 나뉘어 있다.

부안 출생인 최 시인은 '대통령 얼굴이 또 바뀌면'으로 등단했으며 전국여교사모임 전남회장과 전교조 목포·신안여자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목포공고 교사, 작가회의 목포지부장으로 문단활동을 하고 있다.

로 우리네 어머니의 모습을 풀어내 시 읽는 재미를 더해주고 있다.

"전교조 활동으로 어머니의 애간장을 다 녹였

다"는 시인은 "오롯이 이 세상의 어머니께 그리고 모든 아들 딸들에게

비치는 눈물겨운 시편들이며, 내 가슴에 시의 밤이 어머니께 죄를 사하는 마음으로 썼다"고 밝혔다.

부안 출생인 최 시인은 '대통령 얼굴이 또 바뀌면'으로 등단했으며 전국여교사모임 전남회장과 전교조 목포·신안여자회장을 역임했다. 현재 목포공고 교사, 작가회의 목포지부장으로 문단활동을 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제 56회 호남예술제 합창·합주 입상자

합창 입상자

금부(김유나 외 47명, 지도교사: 안미영)